

## 무술년 신년 종령 법어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새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무술년 새해는 황금개의 해입니다. 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며 마음을 줍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 또한 개의 특성입니다.

이렇듯 올해가 황금개의 해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어우러져 행복이 넘쳐나며,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북한 핵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간절히 서원해 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나의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한 대승적인 참된 불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과 부처님의 지혜의 증득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훴.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戒)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佈)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총기 45주년 창교절 법회 봉행

12월 24일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서원당에서



▲ 창교절 종령 유시문 대독하는 총지사 주교 원당정사

12월 24일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제45주년 창교절 기념 불사가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은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정연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갖춘 정통밀교 총지종을 입교개종(立敎開宗)한 날이다.

이 날 총지사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원정 대성사님께서서는 종명을 지으실 때 대한불교총지종이라 하지 않고 불교총지종이라 명명하신 이유는 총지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을 위한 종단이어야 하고 세상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큰 뜻 때문입니다. 우리 종단은 창종

45주년인 올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종단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종조님의 세상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겠다는 대원력의 표출이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창교절을 맞이하여 원정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높이 받들어 시대에 맞는 교화 방안을 개발하여 우리 총지종을 더욱 큰 종단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승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 여러분! 우리 종단도 이제는 긴 잠에서 깨어나 창종 당시의 열화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서원하는 유시문을 발표했고 주교 원당 정사가 대독하였다.

총리원장 인선 정사는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이어받아 종단의 교화발전과 수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중무 행정을 최선으로 하겠습니다.”며 종단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총리원장 신년사



지난 한해 우리는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는 국정공백을 매우고자 최선을 다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과 포항지역 지진으로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과 피해를 받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평안한 한해가 되기를 먼저 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대자대비(大慈大悲)하다 표현합니다. 불교의 근본사상인 자비(慈悲)의 글자 뜻은 사랑과 연민을 뜻합니다.

자(慈)는 사랑이고, 비(悲)는 연민입니다. 자(慈)는 일체 중생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비(悲)는 일체 중

생이 모두가 예의 없이 당하는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불자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인들이 잔치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기운을 모아 평화의 제전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평화의 땅이 되는 원년이 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무술년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하시고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인선 합장

## 밀교관법 수련 제1기 성료

정통밀교종단 정체성 확립 계기

밀교관법 수련법회가 12월 14일 회향을 했다. 총기 45년 11월부터 5차에 걸쳐 3박 4일 동안 시행된 이번 밀교 관법 수련회에는 현직 전수, 정사들이 참여했다.

중앙교육원 원장 화령 정사의 지도하에 실시된 밀교관법 수련회는 수식관과 함께 밀교의 기초적 관법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밀교 최고의 관법이라 일컬어지는 아자관을 대한 설명과 실수(實修)로 이루어졌다.

아자관을 하기 위해서는 지관(止觀)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월륜관(月輪觀), 아식관(阿息觀)을 거쳐 아자관을 하게 된다. 화령 원장에 따르면 3박 4일 동안의 짧은 일정 때문에 충분한 수련은 어렵지만 심오한 밀교 관법을 익혔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화령 원장은 한국현대밀교 종단 가운데에서 최초로 아자관에 대한 의례법을 마련하고 정통 밀교 수행법을 소

개한 것만으로도 총지종이 정통밀교종단으로 자부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각자가 밀교관법에 더욱 정진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옴마니반메훴 진언을 연화수인을 곁두고 특유의 운율과 함께 정진했던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련법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일반 교도들에게도 확대한다면 향후 교화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謹賀新年

총기 47년·불기 2562년

#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총리원장 인 선  
사감원장 안 성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 조계종 종정법어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靑山綠水毘盧身  
<청산녹수비로신>이요  
海上波濤長廣舌  
<해상파도장광설>이라.  
千聖萬祖今何在  
<천성만조금하재>오.  
拄杖頭上放毫光  
<주장두상방호광>이로다.

청산녹수는 비로자나 법신불이요, 바다 위 파도는 부처님의 장광설이라. 일천의 성인과 일만의 조사시여!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장자 머리 위에서 백호 광명을 놓음이로다.

戊戌年(무술년)의 새아침에 솟아 오른 태양이 사바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비추어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화합으로, 이기심은 자비심으로 화(화)하여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종교와 사상, 지역과 인종을 떠나 지구촌의 개인개인 모두가 참나를 밝히는 참선수행으로 삼천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四海五湖(사해오호)의 處處(처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이 소멸하여 모든 인류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정진합니다.

시간은 迅速(신속)하고 富貴(부귀)와 功名(공명)은 덧없고 三界(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고 인생은 흰 구름

처럼 허공중에 두둥실 떠 있다가 홀연히 흔적 없이 사라지고 四大六身(사대육신)은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숨을 들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곧 바로 來生(내생)입니다.

諸行無常(제행무상)의 이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日常生活(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만번 參究(참구)하는 것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한 생(생)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몰록 화두가 해결되어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땅덩어리가 황금이 되고 바닷물이 감로의 醞釀(제호)가 되어 영원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長安萬里千萬戶(장안만리천만호)에 鼓門處處眞釋迦(고문처처진석가)라 마음의 고향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 나오는 이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로다.

무술년 새아침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眞際

### 태고종 종정법어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무술 새해 우렁찬 경계의 소리 천지가 동하니, 패러다임의 변화로 희망 넘치는 행복나라 건설하세요!

인간과 오랫동안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해온 개(犬, 狗)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의리의 동물(忠仁獸)으로 인식됐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용 영수(靈獸)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불가(佛家)에서 바라보는 개는 어떠한가?

<무문관> 제1칙 화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조주무자(趙州無子, 趙州狗子)’로 불리는 이 ‘무자’ 화두의 주인공이 바로 개입니다. 또한 불가에서 <사분율> 42권에 고기를 금기시키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화산에 삽살개 ‘선청’을 타고 있는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상은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에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안위를 보살펴서, 편안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해이며, 지방자치 책임자들을 선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경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인기보다는 비난을 감수하고자라도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수행자들은 한순간도 헛되이 하거나 마구니 장난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쉽 없이 정진하고, 국민 모두는 거안사위(居安思危)하는 마음으로 단결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희망의 끈을 이어간다면, 지구촌은 안온하고 남북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나 믿으며, 국민 모두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62(2018)년 새해 아침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 천태종 종정법어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불기 2562년(戊戌年)  
新年 法語

佛放光明現神通(불방광명 현신통)하니  
歡喜衆生發菩提(환희중생 발보리)하니  
佛垂慈悲說妙法(불수자비 설묘법)하니  
開悟衆生度生死(개오중생 도생사)하니

부처님이 빛을 내어 신통의 모습을 보이니 기쁨에 찬 중생들이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네. 부처님이 자비를 드리워서 묘법을 설하니 깨달음을 얻은 중생들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하여 중생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자비감로가 내리어서 중생들의 갈망을 채워주네.

불기 2562년 무술년(戊戌年) 새해 새아침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김도용

### 진각종 총인법어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세간 모든 일에는 가고 오는 거래(去來)가 있고 더하고 덜한 차별(差別)과 선하고 악한 분별(分別)이 있으나 진리(真理)의 세계(世界)에서는 모두가 다 한 가지이니 어찌 시비(是非)하고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삼세(三世)를 두루 하사 사방세계(十方世界)를 밝혀온 대일(大日)의 광명(光明)이 무술년(戊戌年) 새 날을 여니 우리 함께 어울려 이 날을 축하(祝賀)하면서 기쁘게 맞이합시다. “불법(佛法)은 체(體)요, 세간법(世

間法)은 그림자”며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남의 눈 티끌은 잘도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큰 거울에 만물(萬物)이 걸림 없이 비치듯이 대원경지(大圓鏡智)의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자성(自性)을 밝혀 스스로 돌아보고 참회하면서 진각(眞覺)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무술년 원단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회정

##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천사 전세형 12/5 30,000	양지현 12/7 10,000	정각사 변순개 12/7 20,000	강승민 12/11 5,000
이복남 12/11 10,000	권형민 12/7 10,000	안한수 12/10 10,000	무명씨 12/19 10,000
관성사 황성녀 12/8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11/22 50,000	지인사 허성동 12/15 30,000	무명씨 12/19 10,000
기로스승 해정 11/24 10,000	수인사 정순득 12/15 10,000	초록어린이집	최영미 12/11 50,000
동해사 탁상달 11/21 20,000	실보사 이순옥 12/4 10,000	황화성 11/27 30,000	사원 무기명
탁상달 12/7 20,000	이순옥 12/8 10,000	총지사 박정희 12/14 10,000	허태연 12/13 20,000
만보사 정덕순 11/24 10,000	실지사 조성우 12/1 10,000	총지사 신용도 12/14 10,000	이학열 12/13 10,000
밀인사 정정희 11/29 5,000	박병성 12/19 20,000	손경옥 12/15 10,000	신운산 12/15 12,000
백월사 김강미자 11/30 10,000	운천사 무명씨 11/24 10,000	혜정사 정은선 11/30 10,000	박필남 12/15 10,000
진평 12/20 5,000	일원어린이집	지성인 11/30 20,000	김갑선 12/19 10,000
진호영 12/20 5,000	김용미 11/27 10,000	최영례 12/20 10,000	
법황사 박미경 12/18 10,000	하재희 11/27 50,000	화음사 무명씨 11/30 10,000	
벽룡사 양정현 12/7 10,000	구미자 11/30 10,000	강승훈 12/11 5,000	

#### 11월 21일 ~ 1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포항 수인사 지진피해 복구 중에도 이웃돕기 김장

## 중앙동 관내 및 무료 급식소 등 100여 곳 지원



충지중 포항 수인사(주교 안성 정사)는 12월 2일 교도들이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에 수인사 신정회와 봉사 단체 수인회는 부

침 가르침인 보시행의 실천인 이웃 나눔 김장 500포기를 담았다.

그동안 지역 봉사 단체로 꾸준히 활동을 해온 수인사는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수인사의 피해 복구와 더불어 꾸준히 전개 해 온 이웃 돕기를 전 교도들과 힘을 모아 시행했다.

또한 매일 마지막 일요일에는 수인사에 무료 급식소를 열어 복지의 사각 지대를 없애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인사의 꾸준한 지역 봉사 활동으로 포항을 대표 하는 불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중앙동 관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청소년 가정, 무료 급식소 등 100여 곳에 전달되었다.

포항=수인사 김예선, 최정민 통신원

# 성남복지회관 수탁 및 원장 임명

## 성남 양지동 제1복지회관 원장 임명과 운영 개시



▲ 정동숙 원장 임명장 수여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은 성남 양지동 제1복지회관 운영권을 성남시청으로부터 위임받아 12월 21일 역삼동 통리원에서 정동숙 원장을 임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 35번길 4에 위치한 양지동제1복지회관은 대지면적 768.3㎡에 건축면적 195.2㎡ 지하 1층 지상 3층 알씨조 스텝 구조로 되어 있다.

지층 공동작업장과 1층 보육원, 2층은 노인정, 3층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또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밑반찬 배달, 건강음료 지원을 하며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장학사업도 벌일 계획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선정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지원 사업과 보건 의료 사업 및 노인교육문화사업, 주민과 청소년 교육문화사업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지동제1동 복지회관 정동숙 원장은

“양지동 제1복지회관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사업에 성남시민과 수정구, 양지동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때입니다. 복지재단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며 수정구 팔순 구순잔치, 양지동 노인잔치, 명랑운동회 등 준비된 사업의 진행 원만을 기원 했다.

복지재단 이사장 인선원장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만큼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양지동 제1복지회관의 사업 번창과 직원들의 건강을 빕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복지관이 되기를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양지동 제1복지회관은 2018.1.1부터 충지중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

# 전국사찰수호聯, 종단협 산하단체 등록

## 이사회서 산하단체 구성 결의... 종단협 회원 종단 지원 기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의의 산하 단체 가입을 결의했다.

이날 종단협은 도시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침해당하고, 불교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을 돕고자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수도사 주지)를 산하단체로 등록하기로 했다.

회장 설정 스님은 “범종단적으로 삼보정재 수호를 위해 활동하

는 전국사찰수호연합회의의 경우 불법수호를 위해 힘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케이볼카 개발 등으로 사찰 환경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분쟁에 종단협을 대신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산하단체 가입 요건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단협의 이번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의의 산하단체 구성으로 향후 사찰수행환경 침해문제 대응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종단협 소속 종단 중 행정력이 떨어지는 협의회 회원 종단에 해당 사

# 충지중 사회복지재단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

##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 500만원 기탁



▲ 성금전달(강남구청 복지과 과장 이규형, 재무부장 원당 정사)

충지중 사회복지재단은 연말 이웃돕기 기탁으로 12월 21일 성금 500만원을 강남구청 (구청장 신연희) 사회복지과에 통리원 재무부장 원당 정사가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를 대신하여 재무부장 원당 정사는 “충지중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지역 사원과 교도들이 보내 주신 작은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임과 보시행의 실천으로 우리 이웃

# 교구, 신정회 합동회의 개최

## 부산·경남, 대구·경북 12월 14일, 충기 46년 결산합동회의 열어



▲ 대구·경북 신정회 합동회의의 참석자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지회장 황윤희)는 12월 14일 울산 실보사에서 각 사원 신정회 간부 및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회 지회 회의를 개최했다. 충기 46년 교구 행사 진행 및 결산을 보고하고, 내년도 주요행사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황윤희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은 “지난 한해 동안 신정회를 이끌어 오신 각 사원 회장, 총무 및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전국 교구 중 가장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신정회가 되기를 서

# 한마음 겨울캠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 1 일 시 2018. 01. 22-24 (2박3일)
- 2 대 상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 3 내 용 여행후기발표, 인성강의, 문화체험
- 4 장 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7길 399 하이원리조트
- 5 개별 참가문의
  - 각사원주교
  - 통리원 문의

Tel 02-552-1080~3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불교충지중

### 조계종 총무원장 신년사



설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8년 무술(戊戌)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었으며, 우리 종단은 청정가풍의 여망으로 제35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출발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게 합니다. 새벽예불에서 마주하는 한분 한분의 미소는 나만

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부처님의 자비로움 그대로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신심과 원력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천사불여일행天思不如一行'이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다짐하더라도 한 번 몸소 실천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시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미소를 지금부터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과 같이 대하면 조화로운 새 세상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물질만능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심과 공심과 원력의 불꽃을 피워내 함께 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간절히 한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력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의 엄중한 안보적 상황과 외교적 고난, 경제적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술년은 개띠의 해입니다. 불교에서 술신장(戌神將)은 충성과 의리, 끈기의 상징이자 예술성이 풍부한 정취보살(正趣菩薩)의 화신으로 여겨 왔습니다. 뛰어난 예술성과 문화는 평화와 안정 속에

그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다툼이 사라진 자리에 화합이 찾아오고, 분쟁이 종식된 땅에 평화의 싹이 트게 됩니다. 화합과 평화 가든 세상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불국토일 것입니다.

불자 사부대중 여러분! 새해에는 종단의 안정과 수행종풍의 진작을 통해 저력을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을 이유로 저마다의 수행 본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정진해서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해야만 내면의 세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닦는 공부에 부지런 합시다. 청정 수행 기풍은 종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의 뜻을 모아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 나는 불교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밝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기2562(2018)년 새해 元旦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 정

### 천태종 총무원장 신년사



춘광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희망과 축복을 가득 안고 戊戌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해의 바다에 파도가 멈추고 갈등의 대지에 어둠이 물러나니 온 인류의 가슴에 찬란한 광명의 새아침이 열렸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배우고 바로 실천하며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여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합시다.

나를 낮추는 곳에 평등이 있고, 상대를 높이는 데에 상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립과 폭력 그리고 테러와 전쟁은 자만과 이기심의 산물이니, 하심과 공경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도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새해는 나부터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국민이 됩시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의 선행과 한 사람의 준엄이 밝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근본에 충실하면 대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니 새해에는 보다 준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는 '황금 개의 해'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는 특별히 귀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해지고 세상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겠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두가 조금씩 낮추고 공경하며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첨단 사회라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과 인류의 지고한 가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희망으로 밝은 무술년 새해에는 너와 나의 구별 없이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2(2018)년 새 아침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변 춘광

### 태고종 총무원장 신년사



편백운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대망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며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종단 역시 중도의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집행부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일에 눈을 돌리면 오늘날 지구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에컨대 생태계파괴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상변화, 그릇된 신념에 따라 도처에서 행해지는 테러와 국지전쟁, 서구자본주의가 불러온 빈부격차와 경제갈등, 남의 나라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대국의 패권주의 등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지구촌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 정세는 더욱 위험한 시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어 어쩌면 우리민족이 우리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현상과 비합리적인 힘의 논리가 정의로 둔갑하는 이성(理性) 상실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진속(眞俗)과 선악(善惡), 시비(是非)의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中道) 사상과 자타(自他)와 유무(有無)가 한 뿌리라는 불이(不二)정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은 각기 분절(分節)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가 상즉(相卽)하고 상입(相入)하는 까닭에 일체 만물은 인다라망(印陀羅網)으로 연결된 관계의 세계이며 일원생명(一源生命)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공존을 위한 상생(相生)의 도리(道理)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생의 도리는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사섭(四攝)을 신앙의 실천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의 근본사상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 온 경쟁과 승리, 정복과 지배라는 서구문화의 패권을 지양하고 차별없는 세상과 인류공영의 지구촌 가치를 실현하는 대체 이념으로 승화되기에 충분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魔)가 따르는 반작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세계를 고통의 바다(苦海)로 표현하시고 참고 견디는 자만이 살아남는 감인(堪忍)세상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생

기면 남을 원망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곧 나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세상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모든 일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삶이란 세상이라는 크고 넓은 도화지위에 인생이라는 자기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해마다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지 오직 본인 선택할 문제입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자신이 쫓는 사슴만 눈에 보일 뿐 사슴이 달러가는 넓고 푸른 벌판을 보지 못합니다(逐鹿者不看山). 또한 바람이 불어 가랑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큰 태산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一葉蔽目不見泰山).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넓은 벌판을 보지 못하고 사슴만 보고 달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며 편견(偏見)의 가랑잎에 눈이 가리워 대의(大義)를 그리는 못난 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가슴을 활짝 열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자세로 사람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吉年行惡是凶年(길년행악시흉년)  
凶年作善是吉年(흉년작선시길년)  
常勤精進作善業(상근정진작선업)  
戊戌新願皆成就(무술신원개성취)

좋은 해를 맞이해도 악을 행하면 나쁜 해가 될 것이며, 비록 나쁜 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좋은 해가 될 것이거늘, 부지런히 정진하여 선행을 쌓아서 무술년의 소망을 모두 함께 성취하소서!

戊戌元旦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운

### 진각종 통리원장 신년사



희성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무술년 새 해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전쟁과 테러 등 긴장이 감도는 곳에는 함께하는 정신으로 평화가 공존하기를

서원합니다. 가난하거나 소외된 곳에는 나누는 마음으로 평등세상이 열리기를 서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반목이 있는 곳에는 서로가 배려하고 공경하며 화합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아픈 이들이 없고 상처 받는 이들이 없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짓고 받는다는 말입니다. 새해부터는 주변과 이웃, 환경을 탓하지 말고 수원(習怨)은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술년 원단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희성

참회하고 실천하면서 희망의 복전을 일구어야 하겠습니다.

촛불로 세간을 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성(自性)을 밝혀 지혜와 복덕이 갖추진 진리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중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가 화합되고 한반도에 평화 가 깃들며 국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도덕윤리가 바로서서 질서를 회복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서원합니다.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通佛敎)적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 무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수 현  
중앙총의회 의장

좋은 꿈 많이 꾸셨는지요? 2018년은 힘찬 새해의 붉은 태양처럼 가슴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유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저력은 무척 강인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비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눈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비가 부

## 삶의 그릇에 물을 채워야 할 때와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다

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려야 비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너무 많으면 욕심이 생겨 비워야 하고 사랑이 너무 많으면 집착이 생겨 비워야 하고 자신감이 너무 많으면 자만이 생겨 비워야 합니다. 여유로움이 너무 많으면 게으름이 생겨 비워야 하고 슬픔이 너무 많으면 우울함이 생겨 비워야 합니다. 또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해가 다가옵니다.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저물어 가는 해에 다 실어 보내세요. 새해엔 새로운 희망들이 우리를 찾아오리라 기대 해 봅니다. 경전 스타니파타에 보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물질적 집착 이아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을 수 없다”이 말에 부다가 답을 한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이런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 집착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도 낳아야 하고 돈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자식이든 재산이든 명예와 권력이든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걱정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면 들어 올 때까지 걱정,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집착하게 되면 더욱 근심 걱정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마음의 집착을 내려 놓아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범 경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은 황금의 개를 의미합니다. 개는 에너지가 강한 동물로서 양(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고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황금의 기운과 에너지로 금년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황금빛이 스며들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복문(福門)이 활짝 열려서 풍족함과 넉넉함이 가득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기도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발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은 행함을 뜻합니다. 황금빛의 복문과 풍족함과 넉넉함은 행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행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나문사불길흥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도를 얻는 것은 모두 선으로부터 나는 것이니, 경전과 계율로써 스스로 마음과 몸과 입

## 복은 행해야 얻는다

을 제어해야 한다. 선은 큰 갑옷이어서 전장의 무기를 겁내지 않으며, 선은 큰 배라 악한 바다를 잘 건너간다. 능히 믿고 지키면 가정이 화락하고 평안하며, 현세에 경사로운 복이 자연히 따를 것이다. 이것은 모두 행하여 얻은 과보요, 신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은 곧 좋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선은 부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계율의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면 자신과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깃들며, 그 기운과 에너지로 만사가 형통하여 질 것입니다. 무릇 불자란 이와 같이 행하여야 참다운 불자, 진실한 불제자라 할 수 있으며, 지키지 아니하고 퇴진한다면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진실하고 현명한 불자입니다. 참불자로 거듭 나기를 발원합니다. 이와 같이 닦고 행하는 불자를 위해서 자애로우신 부처님이시여, 금년 한 해에도 불자들의 가정에 복덕과 건강과 행복을 내려주시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과 제불보살의 지혜와 자비광명으로 일체서원이 이루어지고 원만한 성취되기를 중심으로 발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인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 내 마음이 새해가 되자



정인화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속에서 새로운 해가 떴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해를 보기 위하여 바닷가와 산에도 갑니다. 새해에는 가족이 건강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해를 반기며 가슴으로 안습니다. 해는 묵묵하게 담담하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새해의 해에다 특별하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해 그리고 내일

의 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름없이 항상 같습니다. 해는 묵묵히 비춥니다.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 원한 있는 사람 등 상하 구별 없이 모두에게 비춥니다. 새해의 해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태양처럼 모두에게 비추는 차별 없는 마음. 새해를 맞이할 때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 늘 결심하는 의지의 마음. 목표가 새해에만 세우는 것이 아닌 항상 세워 정진하는 마음.

해는 365일 같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해가 되어서 항상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해를 볼 때마다 서원을 생각하고 목표를 점검하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의 해, 베품의 해, 발전의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가정의 평안과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훔.

## 정진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해야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두손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올해는 무술년으로 개띠입니다. 개는 사람들과 인연깊은 동물로 따뜻함과 지혜,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수행과 선정을 통해 삶의 지혜를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현대 정보화시대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미국의 애플사를 창시한 스티브잡스와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저커버그의 공통점은 매일 매일 명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의 나를 깨우치는 자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깊은 수행과 선정만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인간본연의 자성부처님을 증득하는 진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극한 기도와 선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번뇌와 애환을 겪으며 생활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과 미물들에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바세계라 하셨습니다. 사바세계란 인고(忍苦)로서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인연법(因緣法)으로 형제자매, 이웃, 친구, 동료 등 여러 가지 인연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어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잡된 인연들을 실타래를 풀듯 한가닥 한가닥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할 수 있도록 실천과 수행에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부처님께서는 더욱더 수행하고 정진하고, 실천하여 힘들고 고달픈 자신의 삶을 극복하기를 서원 하셨습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주만유에 상주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번뇌와 잡념, 탐진치에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탐심을 없애야 합니다. 조그마한 탐심 때문에 부모와 자식, 형제간, 이웃간, 동료간에 싸움을 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탐심을 버리고, 열심히 정진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할 것입니다. 무술년 한 해에는 나의 마음자리를 바르게 잡고, 탐심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 복을 짓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안 성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무술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년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

에 행복과 복덕이 증장하기를 서원합니다. 복을 짓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입니다. 복 받을 일구는 것은 자신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돋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전(福田)이라 합니다. 밭에 씨를 뿌려 수확을 하듯이 몸과 입과 뜻으로 복을 지으면 세세생생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은 그대로 복 밭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모든 불자들이 복전

(福田)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복을 짓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법·승 삼보에 진정성을 가지고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스승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우러러 찬탄하면 그것이 복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대은혜(四大恩惠)를 갚는 것입니다. 국가·삼보·부모·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은혜 갚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 일은 복과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갖지 않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을 짓는 가운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없어지고 복 밭이 열립니다. 새해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여 큰 복을 짓고 많은 복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성도합시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마니합창단장 최영아

무술년 한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 황윤희  
각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만다라 합창단장 이상록  
부림 합창단장 조정애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 신정회 지회장 최윤정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금강 합창단장 락노선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전라 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사/원/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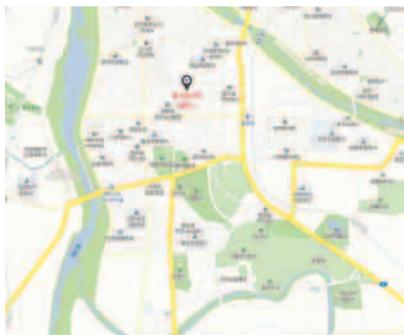
# 불국정토 경주 국광사



## 밀교 전당의 가람을 갖춘 국광사

본원(本願)은 성불(成佛)이요  
여과(余果)는 복덕(福德)이라  
서원(誓願)은 중생(衆生)의 뜻이고  
성취(成就)는 부처님의 뜻이다

신심(信心)은 종자(種子)되고  
자라나는 보리수에  
공덕과(功德果) 익어진다



▲ 불교총지중 국광사 약도

신라 천년 역사의 고도 경주에서 1972년, 동해의 활기찬 서광의 빛이 일었다. 국광사의 건립이었다. 국광사에 모여든 보살들의 불심으로 경주 읍성 동편 성건동 132번지에 부지를 구입하여 사원의 건립과 동시에 선교부에서 국광사라는 사원으로 승격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 열광적인 불심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보살님들의 염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광사는 1993년 경주의 최종심지인 동구동 164-14번지, 경주 읍성 성벽 안으로 이전하였다. 관공서 법원 경찰서 등이 모여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하여 절로서는 안성맞춤인 곳이라 교회를 인수하

여 부처님의 전당으로 탈바꿈하였다. 시내 각 교회 반발도 있었으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우주에 총만하시고 삼라만상을 포용하심에 따라, 큰 탈 없이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밀교 전당으로서 가람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불심은 더욱 더 왕성하여 끊임 없이 교화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국광사는 총지중 창종과 동시에 건립된 사원이라 절에 다니는 모든 분들의 자부심이 남다르다. “부처님의 법을 받아 노력하신 선배님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훌륭한 정사님 전수님께서 우리 국광사를 위해 노력하셨고, 보살님들의 깨달음을 위해 불심을 넣어주셨습니다. 또한 훌륭한 부처님의 법어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많은 정사님들께서 국광사 주교로 있으며 통리원장을 겸임하여 그 소임을 다하신 곳으로 종단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교도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정적인 보살님들이 많고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라며 김순란 회장은 전했다. 김순란 회장은 모친 때부터 국광사를 다녔고 현재 45년째 총지중 역사와 같이하는 아주 불심 깊은 신도이다. 현재는 국광사의 신정회 회장직을 맡아 보고 있다.

김순란 회장은 경주 불교 연합회에서 주최했던 연등행사를 회고했다. 영천 단음사, 현곡 수계사, 승천사, 천태종 등 각지에서 모여 행사를 이끌었는데, 국광사가 제등행렬 가장 선두에 서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초과일이 가장 큰 명절인 만큼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었으면 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보살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한두 달 전부터 절에 나와서 연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큰 연등을 몇 개씩이나 직접 풀 발라가면서요. 그럴 때면 정사님 전수님 오셔서 간식을 챙겨주시며 뭐라도 꼭 하나 더 도와주시려 했습니다.”당시를 돌이키는 김순란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전보다 많은 보살님이 떠나시며 교도 숫자가 많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절도 많이 노후되었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그때를 생각하며 불공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현재 계시는 전수님이 혼자서 고생이 많습니다. 보살님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늘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불공하겠습니다.”인터뷰를 마치는 김순란 회장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국광사는 옛 신라의 불국정토지로 지역상으로도

## 보살들의 뛰어난 정진력으로 함께하는 국광사

유서 깊은 곳에 자리매김 하였다. 경주의 랜드마크인 불국사와 15k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불국정토를 속세에 건설하겠다는 그야말로 야심찬 통일신라의 꿈을 드러내는 건축물로 이름난 불국사는 불국정토에서 유래하였다. 국광사(國光寺)는 한자로 ‘나라 국’자에 ‘빛 광’자를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옛 신라의 터에 자리 잡은 절이다.

국광사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와도 가깝다. 바로 경주 향남동의 봉황로 내남사거리에서 향남동 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편도 1차선 도로인 ‘황리단길’이다. ‘황리단길’이라는 명칭은 향남동과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합친 단어이다. 경리단길처럼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카페나 식당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황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본래 황리단길은 1960-70년대의 낡은 옛 건물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장소였다. 인근에 대릉원과 한옥마을이 있어 문화재 보존지역 등으로 건물의 증개축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개발이 더디던 낙후 지역이었다. 그러나 경주 시내의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다양한 카페와 주점,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주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국광사는 주교 혜안정 전수님. 혼자 사원을 끌어나가는 일이 꽤나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심심한 위로로 건네자 “힘들다고 별 수 있습니까? 그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절에 오시는 모든 보살님들의 정진력은 대단합니다. 그런 보살님들 앞에서 스승인 제가 힘들다고 투정부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용맹정진입니다.”하며 호탕하게 웃는다.



주교 : 혜안정 전수

전화 : 054-772-8776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경주시 동부동 164-14)

### 국광사 김상필 보살이야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정말 취미 생활 정도로 시작했다. 하지만 자성일마다 설법을 듣고 불공에 집중 할수록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절에 다니면서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많이 반성했지만 개중에도 유달리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태교이다.

아이를 가졌을 때 나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진 사람과 자주 부딪치는 일이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휘둘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운 일도 많았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을 많이 미워했다. 모른다고 용서될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인지도 몰랐다.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내 그때의

성격을 쏙 빼닮아 있었다. 성격이 불같아 어릴 때부터 타인과 마찰이 잦아 친구들과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곤 했다.

절에 다니면서 깨달았다. 아이가 유달리 다른 사람과 싸움이 잦은 것이 나의 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위해서 처음엔 불공을 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아이에게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길 바랐다.

나는 늘 아이에게 싸우지 마라, 하고 말로만 타이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그러면 나도 절에 갈까?”하고 먼저 물어오는 것이었다. 그때 아이는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먼저 선뜻 내가 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신기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성일

만 꼬박꼬박 지키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월초기간도 지키기 시작했다.

같이 불공을 하니 아이도 점차 깨닫는 것이 눈에 보여서 기뻐다. 어느 날은 월초 기간 중에 아이가 소풍에서 친구들과 싸웠다면 집에서 투덜거렸다.

나는 아이를 조금 달래곤 차별회사를 넣었다. 아이의 갈등이 잘 풀리길 바랐다. 그러나 아이와 싸운 친구와 친구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아이에게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 것을 명하며 집에 찾아온 모녀와 마주했다. 정말 깊은 마음으로,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죄했다. 아이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사과를 했다.

처음에 그 모녀는 내 사과에 꿈쩍 않고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내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과하자 결국엔 본인들도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굴욕이나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떠나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지경이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였다.

그 다음 주였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외쳤다.

“엄마 나랑 그때 싸워서 우리 집에 찾아왔던 애, 다른 친구랑 학교에서 크게 싸워서 오늘 교무실에 불려갔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그때 방에서 참지 않고 나왔으면 더 큰 싸움이 났을 거야. 오늘 교무실에 불려간게 너랑 그 친구일수도 있지.”

내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일까. 현재 직장인이 된 아이는 현대인 고질병의 원인중인 하나인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 없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관한 스트레스도 그렇다. 마주하여 일을 하다보면 분명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인데, 결국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나의 문제임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스트레스도 같은 맥락이다. 타인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려하여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물론 타인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오랜 마음 수련이 필요하다.

나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내는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차별회사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불공한다. 무조건 그 사람이 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결국 나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길임을 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끝이 없다. 사람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인생의 반을 넘게 괴로워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 나의 욕구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 부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비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비결이다.

## 부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비결이다

### 국광사 장선희 보살이야기

안녕하세요. 작년 5월 30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국광사에 나 오고 있는 장선희 보살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아주 작은 개인 절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절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또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절도 작은 규모였는데 스님의 외출이 잦고 신도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서 좀 더 큰 절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황사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가는 날에 또 스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절 입구에 앉은 다른 보살님께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국광사라는 데를 가는 게 더 좋겠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을 의지할 데가 간절했는데, 국광사가 마음공부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국광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남편도 있고, 다 큰 자식도 셋이나 있는데 마음을 의지할 데가 왜 간절한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보기와 다르게 화목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열여덟 살에 이웃 손에 이끌리듯 열 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입만 열었다 하면 욕이 먼저 나오고, 제 수가 뒤틀리면 손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마흔이 다 되었음에도 결혼도 하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되기 일쑤입니다.

큰 딸도 얼마 전에 연락이 통 되지 않아 찾아가보니, 스트레스를 어쩌

많이 받으며 사는지 회사도 그만 두고 제 정신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막내 역시 성격이 불 같아서 무슨 말만 해도 대뜸 화부터 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마음 하나 불일 데가 없어서 거의 매일을 울면서 살아왔습니다.

일단은 큰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국광사를 찾을 때의 첫번째 소원은 아들과의 연락이었습니다.

처음 국광사에 간 시간이 아마 공식 시간이었던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도 다들 묵묵히 염주만 돌릴 뿐 아무도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무뎠

고 사람이 왔는데도 아는 체를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멧쩍어져 돌아 나왔습니다.

안 받을 걸 알면서도, 허허로운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전화를 받지 않던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쓸데없이 전화를 자꾸 하나며 짜증을 내던 전과 달리 아주 고분고분하게 전화를 받고 묻는 말에도 대답을 잘해주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틀 후 다시 국광사를 찾았습니다. 전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염주도 받고 불공을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에,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더 걸어보니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말 국광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많

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다툼이 생겨도, 전과 달리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크게 아프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남편은 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욕하는 횟수도 많이 줄고, 차분하게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수술한 남편의 다리의 병이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가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안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저는 그저 부처님께 의지를 하며 열심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고집이 누그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편의 다리를 아주 낮게 해주는 쪽으로 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고 다리가 다 나아서 지금은 아주 잘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는 큰아들입니다.

하루하루 노동판을 전전하던 아들이, 선임의 소개로 기숙사가 제공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광사에 다닌 후 저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절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나오는 제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도리입니다.

가정의 평안, 마음의 평온이 간절하신 보살님들, 우리 총지중 안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 매일 국광사에서 정진



**반월성 화덕 피자**

참나무장작을 이용한 정통 나폴리식 화덕피자 & 파스타

홈메이드 정통 이탈리아 패밀리레스토랑



**대표 홍 란(국광사 교도)**

단체예약환영 / 포장주문20%할인

넓은 주차장 고급스런 단체석완비  
예약문의 054-772-1777

칼럼 **지혜의 눈**

지상 설법

# 마가 도로 공덕된다

“

정진 중에 일어나는 마장은 곧 법문이라 우리 밀교 삼륜신은 행자에게 법을 주어 자기 허물 결점 등을 체험으로 알게 하고 육행실천 하게함이 법신불의 서원이라 아직 증득 못한 이는 마장이라 하지마는 모든 지혜 밝은 이는 법문이라 하느니라

”

- 종조법설집 p.114



국광사 혜안정 전수

‘종조법설집’에 마가 도로 공덕 된다고 했습니다. 마는 행자에게 허물을 깨우쳐서 공덕 주기 위해 펼쳐 보이는 당체 설법입니다.

당체 설법이란 만생만물의 법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종조님께서서는 정진 중에 일어나는 마장은 곧 법문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정진 중에 일어나는 법문은 가까운 곳에서 많이 보여주시고 일러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남편이 법부처가 되어 나투시기도 하고, 자식이 법부처가 되어 나투시기도 하고, 부모형제가 법부처가 되어 나투시기도 하고, 친척, 친구, 동료 등등..., 가지 가지 모양으로도 나투시고, 모양 없이도 나투십니다.

만생만물이 부처라고 했듯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러주고, 짐승을 통해서도 일러주고, 물건을 통해서도 일러주고, 일을 통해서도 일러주십니다.

법문이 올 땐 알아차리고 용맹정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근거 따라 법을 주며 짚어질 수 있는 짐을 주십니다. 법이 오면 잘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부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문이 보일

때는 ‘나의 허물을 고치러 왔구나’ 하며 인욕하고 하심하고 원망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조법설집에 ‘우리 밀교 삼륜신은 행자에게 법을 주어 자기허물 결점 등을 체험으로 알게 하고 육행실천 하게함이 법신불의 서원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삼륜신이 법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삼륜신은 자성륜신, 정법륜신, 교령륜신을 삼륜신이라 합니다. 자성륜신은 나의 근본 참성품으로써 부처자리 하고 있고, 정법륜신은 정법을 다스리는 보살자리 하고 있으며, 교령륜신은 명왕으로 지혜 밝은 왕입니다. 지혜로서 절복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삼륜신은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명왕의 활동이 현저함으로 강강한 중생이 있으면 발동하여 항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행실천하게 함이 법신불의 서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매달 초에 육바라밀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행 공부는 복문을 열고, 계행을 잘 지키고, 참고, 낮추고, 부지런히 힘써 닦아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며, 마음이 밝고 청정하여 저서 현세정화 즉신성불을 이루는 공부입니다.

계속하여 ‘아직 증득 못한 이는 마장이라 하지만 모든 지혜 밝은 이는 법문이라 하느니라’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진리가 가득하건만 보는 이의 눈이 어두워 법을 체득하지 못해 마장이라 합니다. 그러나 보살심에서 모든 현상을 진리로 보고 밝게 깨쳐 부처님의 유언무언 설법을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복전(福田)의 문인 법문이 되겠습니다. 공덕 체험 못한 이는 마장이라 하지만은 지혜 밝게 깨친 이는 법문이라 합니다.

공덕성취 위해 마장을 이겨내어 법문을 받게 되고, 나의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 나투신 부처님을 존귀하게 받들고, 하심하고 불공하여 공덕 성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조님께서 법설하시기를 큰 법문은 큰 공덕 되고 작은 법문은 작은 공덕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조님께서 ‘난행고행 단련하여 몸과 마음 금강같이 인격 완성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인격 완성의 길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며 몸과 마음이 단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진합니다.

뜰에 심은 저 나무가 매일 자라나지만 항상 보는 사람 눈엔 보이지 않

는 것과 같다는 종조님 말씀과 같이 인격 또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쉬지 않고 정진하면 어느새 복된 인격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에서 전하는 말씀을 꼭 믿고 실천하여 내 인격 완성하여 내 마음 불국토가 이루도록 합니다.

원정종조님께서 총지종이 세계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내 마음 불국토가 가정으로, 사회로, 나아가 세계적인 교단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부처님말씀에 불심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불국토라 하셨듯이, 온 세상을 부처로 보면 모든 고뇌 해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인격 높이는데 힘씁시다. 인격이 높아지면 소원성취는 저절로 따라오겠지요.

소원은 중생의 뜻이고 성취는 부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부처님 의지하여 마를 공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들은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은 근본을 세우는 필수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 만큼 복덕 짓기에 힘쓰고 용맹 정진하여, 건강과 아울러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파사현정과 화쟁으로 복된 삶 구가하기를

“파사현정은 무아의 보편적 기준에 근거해야”  
“화쟁은 더 큰 맥락에서 각자의 의미 이어줘”

새해를 맞으며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새롭게 설계해 본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러한 자각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불방일과 일로향상의 계기로 삼고 싶다.

교수신문은 지난 2017년을 상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대승불교 공사상을 대표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 이 용어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학교 교수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 파사에 머물지 말고 현정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정치권의 쇄신 노력으로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

파사에 머물지 말고 현정으로 나간다는 말을 고찰해 보자. 여기에는 파사가 앞서고 현정이 뒤를 잇는 시간적이고 단계적인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적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파사가 곧 현정이다. 파사의 과정마다 현정이 드러나는 셈이다.

오래 전 어느 선배님이 불교계 어른의 말씀이라며 전해주던 말이 떠오른다. “어이 김군! 파사현정 하지 말고 현정과 사 하시게.” 파사와 현정의 앞뒤 순서를 바꿔놓은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어둠과 빛을 예로 들면 빛이 발생하는 즉시 어둠이 사라지듯 빛과 어둠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둠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 일이 파사현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물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파사에 집중하다보면 자칫 비판논리에 빠져 매몰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은 아닐까. 단순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현정에 집중하다보면 자

연스럽게 파사도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닐까.

하지만 파사현정은 자칫 자기기준 특히 인간기준에 따른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그릇 이용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파사를 한다며 혹은 현정을 한다며 자기중심주의로 사회의 공익을 해치거나 인간중심주의로 지구생태계를 해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파사현정은 자기입장에 머무르지 않는 무아(無我)의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파사의 본래 목적이 현정에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내로남불’ 따위가 되어서는 또 다른 적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BBS화쟁토론> 프로그램 제작을 맡고 보니 화쟁(和靜)이 화두가 되었다. 화쟁은 파사현정과 근본적인 뜻에 차이는 없었지만 자못 뉘앙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파사현정은 아무래도 대립적인 양변을 전제하고 있지만 화쟁은 처음부터 대립 자체를 넘어서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필자가 이해하는 화쟁은 토론을 통해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일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결국 각자의 입장을 부정하게 되고 반발도 불러오기 쉽다.

그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보다 넓고 큰 차원에서 의미와 맥락을 연결시켜줌으로써 버리지도 않고 또한 고집하지도 않으면서 화합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모두 파사현정과 화쟁의 뜻을 되새기며 복된 삶을 구가하는 한해가 되길 축원 드린다.

김봉래 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 류마티스관절전문병원 최영미류마티스내과

원장 **최영미**(화음사 교도)

### 진료안내

- 류마티스 관절염
- 퇴행성관절염
- 루푸스
- 베체트 병
- 통풍

- 강직성 척추염
- 전신성경화증
- 섬유근통
- 쇼그렌 증후군

- 소화기 내과질환
- 당뇨병
- 호흡기 내과 질환
- 갑상선 질환
- 대사증후군

### 진료시간

월/화/수/금  
08:30 ~ 17:00  
목/토  
08:30 ~ 13:00

점심시간  
13:00 ~ 14:00  
휴진:일요일, 공휴일

오시는 길  
경남 진주시 촉석로  
206-1(대안동), 2층

전화번호  
055-742-1006

동해중 소식

새로운 동해 100년을 기원하며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2017년을 돌아보며

2017년은 동해중학교가 50년 역사의 마무리에 방점을 찍는 한 해였다.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사회적 격변기에서 동해중학교는 오로지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한 몸 다듬기에 전력한 바쁘고 분주한 해였다.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연수기회의 확대는 물론 퇴직예정 교직원에게 대한 연수지원과 교직원 간에도 직원 체육대회를 활성화 하여 화합과 단합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시설 개선에서도 도서관 시설을 확장 개선하였고 도서관 예산을 늘렸으며, 보건실을 현대화하여 학생들의 위생 및 건강 안정을 기하였다. 또한 수학교과 교실, 영어과 교실, 가사실습실, 진로진학 활동실 등을 리모델링 하고 재정비

를 하여 학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마련하였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민원이 내재해 있던 운동장 밖 옹벽 주변의 위험 수(樹)도 모두 말끔히 제거하여 민원 사항도 완전히 해결하였고 학생들의 요구 사항인 운동장에 첨단 디지털 시계를 설치하여 시간 관리 및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중앙 게시판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의 장을 만들었다.

개교 50년을 맞이하여서는 50년만의 숙원사업인 연혁실을 설치하였고 디지털 역사관도 완비하였으며 LED전광판도 새로 설치하여 정보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해 명예의 전당도 새로 재정비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동해 50년의 역사를 하나로 집대성한 '동해중학교 50년사'를 발행한 것은 물론이다.

2018년에는

개선하지 못한 학교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교사들의 진로 지도 역량도 기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학습 내적인 면에서는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전면 개선하도록 교직원들과 뜻을 모을 것이며 교직원들의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교사들의 연수 경비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구체적이고 다양화한 활동이 되도록 할 것이며 소비중심의 수련활동도 개선하여 참여형 체험활동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원칙과 상식에 준한 지침 준수와 운영으로 내실있는 생활 지도가 되게 하며, 동해중학교만의 교권 확립 운영으로 교사가 존경받는 문화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효율적인 생활 지도 지도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연구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새로운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합리적 개혁과 효율적 변화의 학교 경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동해만의 브랜드 개발에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할 것이다.

희망의 2018년에는 동해교육가족 모두가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신생아 인큐베이터 치료 내년 4월부터 건보 횡수제한 폐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횡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 하거나 예비급여화 하기로 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변경 사항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kg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

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소지형 기자



조계사 성탄트리를 보며 생각한 진정한 종교화합은?

화합과 상생의 길 열리도록 우리 불교가 먼저 손 내밀자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12월 18일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 성탄트리에 불이 환히 켜졌다. 조계종은 2010년부터 매년 종교 화합의 의미를 담아 조계사 앞에 트리를 마련하고, 축하메시지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평온의 하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셨다. 스스로를 낮출 때 남의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으며, 나의 모습도 깊이 돌아볼 수 있다"면서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고 살피신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야 한다. 낮은 마음으로 함께 일구는 겸손과 양보의 미덕은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도 "예수께서 누구나 곁혀 들어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외양간서 태어난다는 뜻은 평화와 생명이다. 부처님 가르침과 같다"며 "이날을 그냥 축하하지 않고, 모든 이가 차별 없이 지낼 수 있게 분발하는 것

이 본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계사 어린이합창단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과 '징글벨' 등 캐롤을 합창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지금 96세이신 친정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영화 '아이 캔스피크'로 제38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나문희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11월 25일 열린 영화제 시상식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안고 이렇게 말하며, 수상 소감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본 각계의 반향은 의외로 컸다. 그리고 신선했다. 11월 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메인 앵커인 손석희 아나운서는 앵커브리핑서 나문희 배우의 수상 소감을 직접 인용하며 "종교 화합의 멘트"라 평하며 또 한번 세간에 회자됐다. 이후 한 연예매체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나문희 배우는 '종교 화합의 수상 소감'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다.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에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지금도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요. 지금 그 힘으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지요. 반대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께도 함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신앙만 얘기하면 섭섭하니까요."

종교화합의 사례는 또 있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도 올해로 12년째 은평구 시장안에 위치한 열린선원서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12월 10일 법회서 이정배 목사가 한 설교 결론부를 읊었다. 중동 지역과 유럽에서는 IS와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예루살렘 차지하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 침탈의 피해를 종교간 갈등이라 오해하는 로힝야 사태 등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세종시의회가 내년 세종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일부 기독교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차질을 빚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사실 부지

선정서부터 사업계획 추진 모두 적법 절차를 거쳤는데도 일부 기독교단체의 허위사실 유포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이 필요한 때다.

진짜 성탄의 찬양이 울려야 할 곳은 교회와 성당과 같은 그런 화려한 공간이 아니다. 저 고통 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탄의 신비는 일어나야 한다. 부처님의 가피가 온 사바세계에 해당되듯 성탄절의 가피도 종교의 차이를 넘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때이른 한파로 몸과 마음이 움츠리게 만드는 요즘 자비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들부터 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자. 우리부터 종교화합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먼저 다가가자. 메리 크리스마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1월부터 1인당 월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화 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행)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윤수지 기자

불교총지종 종무원 모집 공고

불교총지종에서 종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 시무(예비성직자), 종무원(사무직), 기자(총지종보)
모집인원 : 0명
자격요건 : 학력, 경력, 성별무관
우대사항 : 불교관련 전공자

◎ 근무조건 및 환경

근무형태 : 정규직, 4대보험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인근전철 :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출구

◎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12)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경

# 촛불과 밀교의 호마

## 하나의 촛불은 미약하지만 수 만개가 모이면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

촛불은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수 천, 수 만개가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1년 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었다. 작고 미약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노릇이다. 조그마한 물결이 크고 거센 파도를 일으킨 셈이다.

불(火)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상징성과 파급력도 각자 다르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한 때는 복한의 독재자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연례행사처럼 행한 적도 있었다. '○○를 규탄한다. ○○○를 타도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화형식의 마지막을 장식하곤 했다.

화형을 행함으로써 분노와 적개심을 더욱 고취시켰고 상대를 규탄하고 타도하였다. 세시풍속 가운데 불은 정월대보름의 쥐불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놀이이면서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이자 나쁜 벌레를 태워 없애는 농부들의 연례행사이기도 했다.

불교에서 불(火)은 번뇌 망상을 없애고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의미를 지닌다.

불교에서 불은 공양법으로 많이 쓰인다. 육법공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등공양과 함께 번뇌망상을 없애고 지혜와 자비를 밝힌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불을 지화(智火)·혜화(慧火)라고도 부른다.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불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불을 숭배하는 배화주의(拜火主義)의 사상가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절대신인 범천(梵天)과 해와 달, 물과 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출가한 석존도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그러나 석존은 정법(正法)이 아니므로 닭을 만한 수행이 못된다고 판단하고 그곳을 떠났으며, 깨달음 이후에는 불을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제도하기도 했다. 우루벨라의 병자촌(兵仗村)으로 가서 불을 섬기는 사회의

도(事火外道)의 바른 가섭 삼형제를 제도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은 인도사회에서 수행의 대상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가들에게는 이론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불[火]이 인간 존재의 구성요소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사원소(四元素)·칠요소(七要素)·십이요소(十二要素) 등이 있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 삼라만상이 지(地)·수(水)·화(火)·풍(風)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요소설(四要素說)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대설(四大說)이라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뼈와 터럭은 다 땅에 돌아가고, 피와 담과 진액은 다 물에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에 돌아가고, 움직이는 힘은 바람에 돌아가서 사대가 각각 떠난다'는 무상계(無常偈)의 구절은 바로 물질과 인간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에 일체제법의 공(空)과 일체만법의 유식(唯識)이 가미되어 지·수·화·풍·공·식의 육대설(六大說)이 세워지게 된다.

불[火]로써 행하는 수행법이 밀교의 호마법이다. 총지중은 준제진언으로써 호마법을 행하고 있다.

불[火]은 밀교에 와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상징성과 비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로써 재난을 없애고 서원을 성취하는 종교의례와 비밀수행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호마법(護摩法)이다.

호마는 산스크리트어로 Homa라 하며, 소공양(燒供養)의 뜻으로 '태워서 공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밀교의 수행에서 관정이나 공양법 등과 함께 중요한 작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호마이다. 호마는 원래 고대인도 바라문교의 베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양물을 불 속에 던지고 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집안의 평안과 오

곡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였다.

즉 불은 하늘의 입이므로 여기에 공물을 던지면, 하늘이 이것을 먹고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연기가 하늘에 미치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고 믿었다.

불교는 처음에 이를 배척하였지만 점차 이를 수용하였고, 인도의 대승불교 후기에 와서는 힌두교의 영향과 함께 번뇌를 태워 없애는 지혜의 불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이 호마법에는 식재법·증익법·경애법·향복법[조복법]의 사중법이 있는데, 여기에 구소법을 더하여 오중법을 말하기도 한다.

식재법(息災法)은 재난을 없애는 법이고, 증익법(增益法)은 서원을 성취하는 법이며, 경애법(敬愛法)은 화합과 존경, 사랑을 이루는 법이며, 향복법은 마군(魔軍)을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구소법(鉤召法)은 사람들을 불러 모

으고 불법(佛法)으로 인도하여 제도하는 것이다.

사중법의 호마진언은 『대일경』과 『금강정경』 등의 여러 밀교경전과 의례서 등에서 다양하게 설해지고 있는데, 그 진언 중에 밀교종단 총지중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하여 준제보살의 진언으로 호마법을 행하고 있다. 이 진언을 통해 일체재난을 없애고 일체서원을 이루게 된다.

준제진언은 '나무 싹타남 삼막삼 못다구치남 단타타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부립'이며, 이 가운데 정주(正呪)에 해당하는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를 사중법의 진언으로 지송하고 있다. 식재법의 준제진언은 '옴 자레 주레 준제 ○○생○○ 제재난 사바하'이다.

무술년 한 해에는 이 식재진언을 많이 외워 일체재난이 속히 소멸되기를 서원한다. 재난이 없어야 만사가 행통하는 법이다.

###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 마하무드라의 노래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선임연구원

동북아시아에서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양 경전이 중요시되지만, 인도, 티베트에서는 <금강정경>을 인도 후기밀교 경전의 효시로 인식하고 있다.

<비밀집회판트라>를 비롯해 무수한 판트라 출현에 대해 당시 판트라를 연구했던 인물들은 교단 외에 거주함으로써 나란다대학 등 전통사원의 울의를 훼손치 않으려 노력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인도교단의 전통과 형

식에서 벗어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불교수행에 대해 연구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 기본정신은 중국의 달마대사가 양 무제와의 만남을 비롯해 중국불교의 현실을 돌아보고 9년간 중국의 토양에 맞는 불교를 고민한 이유와 일치한다.

때문에 밀교수행의 근본정신은 방대한 불교경전과 수행체계의 홍수에 대해 가장 실용적인 길을 찾으려는 데에 있다.

후기밀교수행에서 벵갈, 오트사지역에 유행한 도문학 가운데 밀교수행자들의 오도와 인연을 읊은 시들이 꽤 있다.

당시 밀교수행자들은 방대한 전통경전에 대해 중요한 요의만을 담아 간략한 교학적 기초를 전하고 나머지 주로 실천적 수행을 통해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나로빠는 나란다대학의 학장으로서 명망을 떨치다가 모든 명예와 권위를 벗

어던지고 티로빠(Tilopa, 988-1069)를 스승으로부터 혹독한 수행을 견뎌 성취를 했던 인물이다. 나로빠는 꿈속에 나타난 노파의 권고로 학장직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떠났는데 그 노파는 스승이 되었던 티로빠의 화현이었던 것이다.

티벳불교 까규의 수행 가운데 '미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중유의 수행 가운데 하나로 꿈을 통해 정토를 왕래하거나, 제자의 꿈속에 나타나 가르침을 퍼는 능력을 닦는 것이다.

티로빠가 남긴 시 가운데 '마하무드라의 노래'라는 것이 있다. 한국에는 '사라하의 노래'와 함께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티로빠는 왕족으로서 고귀한 몸이었지만 성취를 위해 초개와 같이 인간사회의 밑바닥을 자청해서 갔다. 후기밀교에서 성취는 현교의 성불에 해당하는 말이다.

성불이 지닌 권위를 벗기 위해 성취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밀교를 지명승이라

부르는 것도 '무명을 벗은 지혜를 얻음'이라는 탈권위의 의도도 담겨있다고 본다.

티로빠는 낮에는 깨를 팔아 장사하고, 밤에는 포주로 업을 살았다고 한다. <화엄경>에는 '화광동진'이라는 말이 있다.

비로자나불의 거룩한 광명의 오도(悟道)는 세속의 가장 비천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구도의 여정 가운데 만난 스승 가운데 백정이나 매춘부도 있었다. 밀교수행자들은 자청해서 시궁과 화장터, 매춘굴을 마다 않고 수행처로 삼았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숨은 권위와 야만과 같은 자아의 질긴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티로빠는 나로빠를 만나자마자 절벽 위로 데리고 가 바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티로빠는 강가에서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초상은 주로 물고

기를 한손에 쥔 모습으로 그려진다.

첫만남에서 사깃꾼인지 모를 티로빠의 간절한 요구에 나로빠는 말없이 절벽에 몸을 던져 무수히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티로빠는 나로빠를 치료하고 그의 오의(悟意)를 모조리 나로빠에게 전하였다.

마하무드라의 노래 다섯째 송을 석지현 스님의 번역에서 전하면 다음과 같다.

만트라 암송과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실천, 경전의 독송과 계율의 엄수, 학교의 교육과 성전(聖典)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결코 본연(本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마음이 어떤 욕망으로 가득차서 목적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직 빛을 가릴 뿐이기 때문이다.

탄트라 수행자(tantrika)가 아직도 분별심이 있다면 그는 삼마야의 정신을 배반하는 자다.

모든 행위를 그치고 모든 욕망을 버려라.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설계



서초동 자동차전시장 설계



연지동 오피스텔 설계

# 時 空 間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간

21세기 미래 지향적 건축공간 창조

첨단기술의 적극수용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

- 계획(Planning)
- 건축설계&인테리어(Design&Interior)
- 건축감리(Surveillance Plan)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12길 48. 2F | TEL) 02-596-7627 | 대표 서정환 010-5207-0659

# 무술년 황금개의 해

삼일사 주교 남혜 정사



또한,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국태민안”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는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평안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올해는 육십간지 중 35번째인 무술년입니다.

2017년은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이었지요. 이때 ‘정’이 음양오행중 불을 나타내고, ‘유’가 12지신중 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붉은 붉은 색이라 정유년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2018년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의 해인데, 왜 황금개의 해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무술’에서 말하는 ‘무’가 오행에서 노란색을 나타내고 ‘술’이 12지신의 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는 흙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흙은 황토색으로 노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8년 무술년은 노란개띠 즉 황금개띠가 되는 것입니다.

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개는 누구와도 친해지며 쉽게 마음을 줍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 또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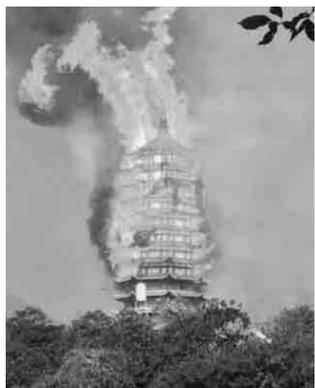
의 특징입니다. 다만 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 따르지만 때론 자유분방해 형식적인 일을 싫어할 가능성이 큼니다. 개는 자유분방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무척 강한 동물이라서 개띠를 지닌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성향을 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무술년 3재인 띠는 ‘인’, ‘오’, ‘술’인 범띠, 말띠, 개띠가 삼재에 해당합니다. 즉 2016년 병신년, 2017년 정유년, 2018년 무술년의 3년간이 범띠, 말띠, 개띠에게는 삼재에 해당되며 2018년 무술년은 3재의 마지막해인 날삼재가 됩니다.

역술적으로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는 왕성하고 활발한 해가 될것이라 합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가 활발한 경제활동이 되어 국가경제는 물론 가정경제에도 큰 성과를 얻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해 봅니다.

# 아시아 최고 중국 16층 목탑 화재로 전소

## 대대적으로 복원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완전 소실



중국 쓰촨성(四川省)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6층 목조탑 영관루(靈官樓)가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었다고 11일 중국 언론 매체 펑파이망, 신경보 등이 보도했다.

쓰촨성 뎬주시에 있는 구룡사 대웅보전에서 발생한 불은 사찰 전체로 번져갔고 아시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16층 목탑 영관루가 화재에 의해 완전 소실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영관루는 명나라 말기인 1600년 초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0년이 넘도록 불교 목탑으로 그 위용을 자랑했

다. 16층 목탑인 영관루는 2008년 쓰촨성 대지진으로 크게 손상이 되어 러시아 산 소나무로 8년에 걸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화마로 인해 또다시 완전 소실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쓰촨 소방당국은 아직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하며 아마도 미 완공 상태의 대웅전에서 시작된 화재가 목재인 탑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현대 티벳어 특강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겨울방학을 맞아 ‘현대 티벳어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티벳어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티벳어 특강은 양승규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초급 티벳어와 중급 티벳어로 나눠 강의한다.

특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기초반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중급반은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054)770-2893

# 성공, 행복을 원하면 심상하라.

## 잠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룬다.

“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선정택 교수

매 샷마다 나는 내 머릿속에 영화를 찾아 갔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보았다. 첫 번째로 나는 내가 공이 종착하기 원하는 페어웨이나 그린의 세밀하고 작은 공간을 보았다. 다음에 공이 그곳으로 가는 길과 궤적의 모습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스윙을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 같은 ‘영화’는 나의 집중력과 매 샷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 잭 니클라우스 (프로골퍼)

”

‘잠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베스트셀러로 사랑받는 책인 ‘꿈꾸는 다락방’도 긍정적인 상상인 ‘심상’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발견된 공통된 의견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심상(image training)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은 그 꿈을 실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심상은 시각화, 정신 훈련, 정신적 시연(상상으로 시합상황 긍정적으로 재연해 보기)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돕기 위해 ‘상상’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잭니클라우스 골퍼의 문구를 보면 선수가 수행 기술을 상상해 보고 정신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심상은 당신의 생활과 업무 중에 당신의 기분과 심리적 에너지 상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연습 때 더 집중하게 할 수도 있다.

많은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심상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방법을 몰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신체 및 생활 기술과 같이 심상도 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체험해야만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도 잘 사용하여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심상의 효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성공을 보기  
심상은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하는

느낌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한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세우고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는 폭을 더욱 넓혀 준다.

### 2. 동기부여

때때로 긴 훈련 중에 마음가짐과 집중의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와 미래의 대회에 대한 상상은 경기 중과 훈련 중에 끈기와 꾸준한 집중의 유지를 도와준다.

### 3. 심리적 에너지 수준의 관리

심상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전히 이완하는 상상과 몹시 흥분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에너지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 4. 기술의 습득과 완성

심상은 기술 습득의 부가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는 기술 실행에서 오차(error)를 수정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 5. 재집중

연습중이나 시합 중에 여러분의 시각적인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이 집중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 다시 방해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 6. 시합을 위한 준비

워밍업과 스트레칭과 같이 신체적으로 시합에 준비하는 것과 같이 정신적으로도 시합에 있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기 상황과 환경 안에 자신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수행에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재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고 이것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상상해 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심상에 대한 연습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차분히 이완하기
2. 모든 감각의 이용
3. 이미지 조정하기
4. 처음에는 심상훈련을 쉽게
5. 감각센스의 이용
6. 연습, 연습, 또 연습

덴마크인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고안한 ‘루빈의 꽃병’은 보는 방식에 따라 그림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미지이다. 가운데 모양을 보면 꽃병이 보이고, 여백을 보면 좌우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물 혹은 환경은 그 존재 자체에서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의 특성에 따라 인식의 다양성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선수가 자신 및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면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규칙적으로 상상한다면 당신의 꿈과 행복은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 보타닉가든 동인천점

##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온

### 건강보조제, 어린이 영양제 및 화장품피부관리, 등관리

점장 허 화 영 (지인사 교도)

인천시 동구 송현로 38(송현동 158 송현프라자 102호)  
전화 : 010-3469-1588





▲ 관성사 특락전 칠보관세음보살

## 불교총지종은

# 진언행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통리원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통리원	교구장 법경	교구장 정인화	교구장 안성	교구장 지정
총무부장 우인	관성사 주교 인선	관음사 주교 정인화	개천사 주교 우인	만보사 주교 승원
재무부장 원당	밀인사 주교 법등	단향사 주교 지홍	건화사 주교 법상	법황사 주교 서령
교정부장 법일	법천사 주교 법경	덕화사 주교 시정	국광사 주교 혜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사회부장 지정	벽룡사 주교 법일	밀행사 주교 도현	단음사 주교 수현	혜정사 주교 진일심
임직원 일동	시법사 주교 서강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혜음	흥국사 주교 지정
중앙총의회	실지사 주교 법우	삼밀사 주교 남혜	수계사 주교 현일	백월사 주교 승원
사감원	정심사 주교 화령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안성	
원의원	지인사 주교 승효제	실보사 주교 덕광	승천사 주교 원봉	
전당건설위원회	총지사 주교 원당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행원심	
총지종유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사회복지재단		자석사 주교 도우		
법장원		정각사 주교 법상인		
중앙교육원		화음사 주교 록경		
밀교연구소		동해사 주교 법선		
학교법인 동해중학교				